



제목	Жизнь и литература доисламских тюрков: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контекст древнетюрк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발행언어	러시아어
발행처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Н
발행일	2007.
저자	Стеблева И. В.
출판도시	Moscow
페이지수	208
ISBN 또는 ISSN	978-5020185524

내용 요약

『이슬람 수용 전의 투르크인들의 삶과 문학: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의 고대 투르크 문학』은 투르크 민족이 아직 이슬람교를 수용하기 이전인 중세 초기 투르크 민족의 문학을 살펴보고 있다.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 사료에 따르면 투르크 민족은 6세기 중반에 세계 역사에 등장하였으며, 수세기에 걸쳐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르크 카간국(6~8세기), 위구르 카간국(8~9세기), 예니세이-키르기즈 왕조(6~13세기초), 투르판 왕조(9세기~13세기)와 같은 강력한 왕국들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독자적인 고대 투르크 문학을 형성하였는데, 이 책은 바로 이들의 역사와 문화, 종교 그리고 문학 작품들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비록 국가의 교체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르크 민족의 문화적 전통은 단절 없이 서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문학 영역, 특히 시 장르에는 통일된 미학적 체계가 형성되었고 그 체계 속에서 고대 투르크 문학 작품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이슬람 이전의 투르크인들의 종교-신화적 관념의 혼합성에 중점을 두어 연구함으로써, 이 시기의 투르크인들의 문화와 종교에는 샤머니즘, 마니교, 불교, 기독교적 관념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북몽골의 오르혼 강에서 발견된 8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르혼 돌궐 비문, 예니세이 강 근처에서 발견된 7세기와 11~12세기에 쓰인 예니세이 비문들, 8~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문자로 쓰인 문서들, 8~13세기에 위구르 문자와 마니교 문자로 쓰인 문서들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비록 고대 투르크 문학 작품들은 여러 왕국에서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지닌 다양한 투르크어로 쓰였고, 내용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공통적인 미학 체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